

■ 민주당 2040 '100인 원탁회의' 무슨 이야기 나왔나

“민심 안읽고 당심만 보다 위기 불렀다”

보수성향 강해 정치 신인 설자리 없어 정책·비전도 와닿지 않아 젊은층 외면

“호남세력만 믿는 무사 안일주의와 기득권이 문제다” “참신한 인물이 없다” “청년층에 무관심하다” “기성 정치인의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정책과 비전이 와닿지 않는다”

이는 지난 3일 저녁 7시 광주 YWCA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청년 100인 원탁회의’에서 쏟아진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들이다.

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원탁회의에 참가한 20대와 30, 40대 광주·전남 청년들은 텃밭인 호남에서 지역색만 믿고 무사안일에 빠져 기득권에만 안주하는 민주당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7~8명씩 원탁 테이블에 모여 토론을 시작한 100여 명의 참가자는 시종 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민주당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가감 없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민주당의 텃밭이며 확고한 지지기반인 지역임에도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혁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 대학 휴학생인 심재홍(21)씨는 “광주·전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당 지역색이 강해서인지 호남에서의 민주당 무사안일주의와 기득권은 문제”라며 “지역색을 벗고 수권정당으로의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이어 “기성 정치인의 보수적 성향이 너무 강한다.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이 젊은 층에 와닿지 않는다”며 “특히 민주당에는 20·30대 젊은 정치인이 부족하다. 젊은 층이 없다는 것은 곧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참가자 중 가장 많은 29명이 ‘호남만 믿는 무사안일과 기득권, 당내 노쇠화로 젊은 층 등의 소외’를 꼽았다. 이어 26명은 ‘참신하고 젊은 인물 부재, 확실한 리더십 부재로 인한 민심이탈’을 지적했다.

이밖에 반(反) 한나라당에만 급급, 대안 없고 구체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정책과 체계화된 유권자 소통 시스템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참가자들은 또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신진 세력 진출을 가로막는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장벽’과 ‘젊은 세대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 미흡’ 등을 꼽았고, 공천기준 관련 당헌·당규의 불신과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는 지역주의, 당내 혁신 부족 등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했다.

직장인 조모(34)씨는 “광주·전남 지역 정치인들은 시민을 상대하지 않고, 오로지 당만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시민을 섬기는 것보다 당 후



광주·전남 20~40세대 청년 100명이 지난 3일 밤 광주YWCA 대강당에서 '민주당을 혁명하다'를 주제로 원탁회의의 토론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가 되는 데 몰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 열린 원탁회의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7~8명씩 원탁테이블로 나뉘 앉은 뒤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한 개별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취합해 유행화한 뒤 전자투표 형태로 즉석에서 다수 의견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20~30대 중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인기 폭발

전국에서 42만명 다녀가

의료+관광 상품 히트

‘2011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6일 42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는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마련하는 등 관광과 접목시켜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합 의학 말고도 의료 정보 제공=“그린 건강 인간 중심 헬스케어”라는 주제에 걸맞게 통합의학·화장·한의학·사양 의학관 등을 마련해 흥취체험, 사상체질 진단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분당 서울대병원, 동신대 한방병원, 밝은광주안과 등이 참여한 질병치료관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10일간 진행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눈 검진을 통해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흥취 체험이나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로 1분 이내 동맥경화·수축병증 등 7가지 질환을

점검해볼 수 있는 코너는 체험 관람객들의 긴 줄이 매일 이어졌고 이 기간 내 펼쳐진 분야별 명의로와 전문가의 무료 진단과 강연도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최초로 통합의료센터 건립지로서의 위상도 세웠다든 평가다.

◇‘의료+관광’ 상품화=의료와 관광을 접목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도 박람회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TV 홈쇼핑을 통해 통합의학박람회와 장흥 천관산, 우드랜드를 묶은 여행상품을 홍보했고 영·호남 산악인 1000명이 참여하는 등반대회를 열거니와 박람회장 주변의 ‘정남진 국화 페스티벌’과 연계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7억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점도 눈에 띈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의료센터 건립 및 통합보건의료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내 통합의학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국비확보 ‘예산 전쟁’ 막 올랐다

국회 예결위 내일부터 정부 상대 정책 질의 ‘복지 강화냐’ ‘재정성 확보냐’ 힘겨루기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7~9일 정부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나서면서 ‘예산 국회’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복지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복지예산을 놓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전쟁의 막이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지역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간다면 예산 정국이 또다시 파행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강화냐, 재정건전성 확보냐=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나 여야는 정도 차가 있을 뿐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복지예산을 1조원 안팎 대폭 증액하겠다는 큰 틀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

한 보육지원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 사회취약계층 집중지원 등을 원칙으로 세웠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6일 “여야 모두 복지 강화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예산 확보 전쟁=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안에는 영남지역 예산 비중이 크게 반영돼 있어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삭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형님예산’인 포항-구룡포 산단집중도로, 포항 영일만 신항과 진입도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문제는 영남 정치권이 호남지역 예산을 놓고 매 예산정국마다 했던 것처럼 영남지역 예산과 ‘교환’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략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기한 내 처리될까=2012년 예산안에는 여야가 철저히 대립하는 이슈가 없어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상임위에 참석해 총실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등으로 여야 관계가 급랭한다면 법정기한 내 처리도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언제 이런걸 해봤어야...

HITEJINRO

개끗한 해바리 소주다
개끗한 차미슬

대나무 활성숯의 정제효과로 깨끗함이 다른 소주

광주전남사랑기금 2억원 조성